

정례브리핑

2020.4.20.(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0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주요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목요일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판문점 선언 2주년 계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4월 27일 11시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는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기념식에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좌석 간 거리 두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활성화와 남북철도 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철도 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4월 23일경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주재로 제 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재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백서 발간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 내용을 담은 '2020 통일백서'를 발간합니다.

이번 백서 발간에는 민간전문가를 편집위원장으로 참여시켜 백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발간사'에서 작년 한 해를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광복 75주년, 6.25전쟁 발발 70주년 등 뜻 깊은 행사가 있는 해인 만큼, 앞으로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 통일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하여 국회, 행정부, 교육·언론기관,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각각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23일부터 통일부 누리집에 게재하여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회 통일교육주간' 관련 사항입니다.

통일교육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8회 통일교육주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한 달 전에 배포합니다.

이 교육주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퀴즈 이벤트를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 통일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23일에 교추협 회의는 서면이 아니라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답변> 네, 김연철 장관께서 직접 주재하고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질문> 예, 그리고 아까 교추협에서 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예타 면제 등 조치를 할 거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해북부선 착공에 어떤 부서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절차를 거쳐서 착공까지 어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추협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예타 면제와 기타 관련사항들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 또 그 뒤에 따르는 계획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면 이제 어쨌든 조기착공 여건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면제가 되면 얼마나 더 시일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답변> 우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예비타당성이 면제가 되면 단축이 되는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 않는 부분, 기간과 비교해서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표로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결되는 질문인데, 예타 면제 요청 건이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여기저기서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됐었는데 이번에 하시는 특별한 그동안 안 되고 지금 이번에 하시는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으

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간 예비타당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건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지금 동해북부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북한과 미국 친서 관련해서 계속 보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냈다고 하고 북한은 안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친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통상 정상 간 친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4.27 2주년 관련해서 말씀하신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이것 말고 계획하고 계신 기념일정이 있는지 여쭙보고요. 그리고 동해선 부분이 이게 배포했다는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이게 끊어져 있는 구간이 강릉-제진하고 포항-삼척으로 아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포항-삼척 구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으면.

<답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측 구간 중에서 미연결 구간은 강릉-제진 구간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해 주신 다음 주 4.27 2주년 계기로 하는 행사내용 보면, 예타 면제 이런 것과 비롯해서 계기성을 가지고 4.27 2주년이라는 계기성을 가지고 뭔가 제안이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부

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이 시점에 개최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4.27 판문점 선언은 두 정상께서 남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합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합의사항 중에 일부이고 또 우리 측 구간이 우리 측의 일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동해북부선 사업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맞아떨어진 사업이어서 동해북부선 사업은 4.27을 계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의지도 보여주고 또 동해북부선 사업은 남북 간에 그간 합의했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의 이행이라는 차원에 더해서 현재 지역사회에 많은 건의도 있었고, 지역의 경제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 4.27 2주년에 이 기념식 말고 다른 행사 예정 중인 게 있으신가요?

<답변> 그거는 제가 놓쳤군요. 다른 행사에 대해서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냥 짧은 추가질문인데, 이런 기념식도 이번에 하시는데 북한 쪽하고 철도·도로 협력 관련해서 회담 제의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답변> 회담 제의와 관련한 사항들은 아직은 제가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